

가을야구 꿈꾸는 SK '왕조 유니폼' 부활

〈붉은색 유니폼〉

2007~2012년 6년 연속 KS의 상징 SK "스페셜 유니폼 입고 영광 재현"

**본지
단독**

2000년대 후반, SK를 '왕조'로 이끌었던 추억의 '빨간 유니폼'이 부활한다.

SK는 다음주 스페셜 유니폼 출시할 계획이다. 그 어떤 스페셜 유니폼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SK 왕조' 시절 착용한 붉은색 원정 유니폼이다. SK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신승강호로 떠올랐다.

원정 유니폼에 대한 좋은 추억도 있다. 당시 SK의 붉은색 원정 유니폼은 팀 전력과 맞물려 '강렬한 인상'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끈질긴 SK의 경기력과 맞물려 강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한국시리즈 3회 우승 중 2차례는 이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2008년 2번째 우승 때 붉은색 유니폼을



SK가 2000년대 후반 '왕조'를 구축할 당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붉은색 원정 유니폼을 '스페셜 유니폼' 형식으로 부활시킨다.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을야구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2010년 한국시리즈에서 4전 전승으로 우승을 확정짓고 기뻐하는 SK 선수들. 스포츠동아DB

입고 잠실구장 한복판에서 열싸우고 기쁨을 나눴고, 2010년엔 대구구장에서 4전 전승 우승을 확정지었다. 당시 경기를 마무리한 에이스 김광현이 포수 박경완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장면은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SK 관계자는 "막판 순위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팀의 가을야구를 염원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팬들이 그리워하는 당시 유니폼을 부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는 과거 유니폼에서 변화를 최소화해 당시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다. 2000년 창단한 SK는 그룹 CI(Corporate Identity)에 따라, 흰색과 푸른색으로 유니폼을 구성해오다 2006년 그룹 CI 변경 이후 획기적인 유니폼 변화를 가져왔고, 새 유니폼과 함께 전력도 급등했다.

당시 홈 유니폼은 흰색 바탕에 주황색 로고와 빨간색 라인을 넣어 CI를 모두 반영했고, 원정 유니폼은 아예 붉은색 바탕으로 디자인했다. 원정 유니폼의 강렬함 외에도 홈 유니폼을 통해 '세련미'를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7년 라인을 추가하면서 완성된 이 유니폼은 2015년 홈·원정 모두 현재 유니폼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착용했다.

SK 선수단도 실제 경기에서 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한다. 이달 중순 '스페셜 유니폼'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가을야구 티켓이 달린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왕조'를 구축했던 붉은색 유니폼이 SK에 힘을 더해줄 수 있을지. 이명노 기자 nrvana@donga.com



박경수 시원한 끝내기포. kt 박경수가 4월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LG와 홈경기에서 2-3으로 뒤진 9회말 무사 1루서 끝내기 2점홈런을 터뜨리며 갈 길 바쁜 LG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다. 박경수는 개인 통산 첫 번째 끝내기홈런을 친정팀 상대로 터뜨렸다. 동료들이 박경수를 축하하고 있다. 수원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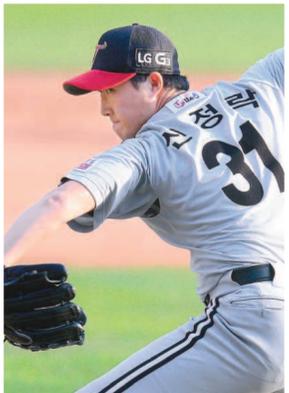
'마구투수' 신정락, 내년에 돌아온다

올해 말 사회복무요원 끝내고 전역 휴가때마다 이천 야구장 찾아 훈련

2015년 5월, 미국 CBS스포츠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LG 신정락(29·사진)의 2014년 투구 영상을 소개했다. 활처럼 휘어 떨어지는 커브를 던지는 장면이었다. CBS는 '잔혹하다', '신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공이다'는 표현을 썼다.

신정락, LG 양상문 감독과는 인연이 매우 깊은 이름이다. 2014년 LG의 기적 같은 시즌을 완성한 주인공이다. 그 신정락이 내년 LG 마운드로 돌아온다. 양 감독이 격한 반대여론의 공세를 스스로 정면 돌파하며 때를 기다려온 2017년 LG 리빌딩 완성의 큰 획이다.

양 감독은 4월 수원 위즈파크 kt전을 앞두고 취재진에 브리핑을 하던 도중 전달 받은 엔트리 등록, 말소 표를 본 후 "경찰에서 선수들이 대거 전역했다"고 말했다. LG의 전력 보강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올해 말 사회복무요원을 끝내고 전역하는 신정



락의 이름이 나왔다. 양 감독은 "2014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대했다. 내년 큰 활약이 기대되는 투수다. 그동안 몸을 잘 만들어왔다고 한다. 사실 야구밖에 모르는 친구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며 "만약 신정락이 불펜에서 던진다면 필승조의 전력이 매우 두터워진다. 마무리 임정우와 함께 위력적인 불펜을 구축할 수 있다. 신정락은

2이닝 이상도 소화 가능한 유형이다. 선발을 맞는다면 역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시즌 전력구성을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신정락의 통산 기록은 5시즌(2010~2014) 10승 9패 방어율 4.79가 전부다. 그러나 데뷔 초부터 무시무시한 위력을 뽐내는 커브와 슬라이더를 갖고 있었다. '굴리는 날에는 선동열 급이다'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우타자 왼쪽 팔꿈치로 날아가다 갑자기 휘어 떨어지는 브레이크 공에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LG는 2015년 최하위로 추락했지만 4위로 시즌을 마치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며 만화 같은 시즌을 치렀다. 특히 신정락은 포스트시즌에서 커브와 슬라이더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LG의 가을야구 에이스 역할을 했다. 한 단계 큰 성장을 이루고 임대한 신정락은 휴가 때마다 LG 이전 챔피언스파크에서 던진다면 필승조의 전력이 매우 두터워진다. 마무리 임정우와 함께 위력적인 불펜을 구축할 수 있다. 신정락은

수원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이대호 4연속 경기 안타 에인절스 최지만은 다시 풀업

시애틀 이대호(34·사진)가 4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대호는 4일(한국 시간) 세이프포드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 홈경기에서 6번 1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60(254타수 66안타)을 유지했다. 2-6으로 뒤진 1회말 2사 3루에서 유격수 앞 땅볼로 찬스를 살리지 못한 이대호는 4회 2번째 타석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안타는 3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3-10으로 끌려가던 6회 1사 1루서 좌전안타를 날렸다. 그러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득점은 실패했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편, LA 에인절스 최지만(25)은 이날 트리플A에서 메이저리그로 승격했다. 9월 로스터 확장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22일 이후 13일 만의 빅리그 복귀이자 올 시즌 3번째 풀업이다. 이날 시애틀엔 결정했다. 이명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쿠어스필드 홈구장〉

평가절하 아레나도, MVP 가시권



손건영의 코모닝 MLB

홈런·타점왕 NL 2연패 유력 타율 0.308...수비까지 안정



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 가슴을 다쳐 11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지만 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차지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인 쿠어스필드는 해발 1610m의 고지대에 위치해 홈런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다. 다른 곳에 비해 공기 밀도가 적은 탓에 비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애초 설계할 때부터 구장 규모를 크게 만들었다. 홈플레이트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좌측 펜스까지가 106m, 중앙까지는 무려 126m나 된다. 콜로라도 구단은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닉네임을 없애기 위해 경기 전 볼을 저온가습실에 보관하기도 하고, 올 시즌부터는 펜스 높이를 8피트(2.44m)나 높였다. 종전 5피트(1.52m)에서 13피트(3.96m)로 높아진 것이다.

반면 쿠어스필드에서 81경기를 치르는 콜로라도 타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각종 타격 기록의 순도가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콜로라도의 간판스타인 놀란 아레나도(25·사진)다. 지난해 아레나도는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1위(42)와 타점 1위(130)에 올랐다. 타격 2관왕을 차지하며 골드글러브와 실버슬러거 상을 싹쓸이했지만 정작 내셔널리그 MVP(최우수선수) 투표에서는 고작 8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올 시즌에도 콜로라도의 가을야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지만 아레나도는 홈런왕과 타점왕 2연패, 그리고 생애 첫 MVP에 오르기 위해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3루수의 기본은 수비

1991년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뉴포트비치에서 태어난 아레나도는 고등학교 시절 LA 타이거즈 선정한 올스타 팀에 유격수로서 두 번이나 이름을 올린 유망주였다. 졸업반 때 성적은 타율 0.517에 출루율 0.615나 됐다. 당초 애리조나주립대학 진학을 약속했지만 콜로라도가 2009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전체 59번째) 지명을 하자 프로 진출로 방향을 틀었다.

마이네리그는 그에게 너무 좋았다. 2011년부터 2년 연속 퓨처스 올스타게임에 출전한 아레나도는 2013년 4월28일 빅리그에 풀업됐다. 두 번째 메이저리그 경기였던 LA 다저스전에서 첫 안타와 홈런을 뽑아냈고, 6번째 경기에서 템파베이 레이스의 에이스 데이비드 프라이스로부터 만루홈런을 때려 눈길을 끌었다. 130경기 1110이닝 동안 저지른 실책은 고작 11개. 아레나도는 1957년 이후 처음 투키로서 3루수 골드글러브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스포모어 징크스도 그와는 무관했다. 2014년 28연속경기안타를 때려 마이클 커다이어가 보유하고 있던 구단 기록까지 깨며 승승장구했다. 해

했다. 지난 시즌에는 무려 157경기에 출전해 생애 최대인 17개의 실책으로 수비율이 0.968에 그쳤지만 골드글러브 3연패를 달성했다. 올해도 4일(한국시간) 현재 고작 7개의 실책만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이 없는 한 4년 연속 황금장갑 수상이 유력하다.

●타율 3할은 MVP 마지노선

루키 트레버 스토리의 활약에 묻히는 했지만 올 시즌 출발은 산뜻했다. 4월에 홈런 10개와 22타점을 쏟아냈다. 타율도 0.308로 높았다. 5월과 6월에 친 홈런은 11개로 주춤했지만 43타점을 보며 해를사다 운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무더위가 가슴을 부리기 시작한 7월이 고비였다. 23개의 안타만을 치는데 그쳐 월간타율이 0.228로 곤두박질쳤다. 타점도 14개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방망이는 8월에 다시 활활 타올랐다. 0.356의 높은 타율을 바탕으로 홈런을 10개나 추가했다. 타점은 이전 두 달치를 합한 것과 같은 36개나 됐다. 4월까지 내셔널리그에서 100타점 이상을 넘긴 선수는 아레나도가 유일하다. 총 117개로 홈런 부문 공동 1위(36)에 올라 있는 라이벌 브라이언트(91타점)를 26개차로 압도하고 있다.

쿠어스필드를 사용하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아레나도가 MVP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타율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 경쟁자 브라이언트도 타율(0.306), 출루율(0.402), 장타율(0.584)에서 조금씩 앞서고 있기 때문에 타점 부문의 우위만으로는 MVP 등극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브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짐스는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해 3할대 타율은 필수적이다.

또 아레나도와 브라이언트의 경쟁은 에이전트의 간접 대결로도 볼 수 있다. 스캇 보라스와 손을 잡았던 아레나도는 그와 결별을 선언하고 '와셔맨(Wasserman) 미디어그룹'에 합류했다. 마이애미 말린스의 지안카를로 스탠튼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13년 3억2500만 달러의 계약을 안긴 곳으로, 스포츠에이전시 랭킹 4위에 올라 있다. 2020년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게 되는 아레나도의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자타가 공인하는 넘버 원 스포츠에이전시인 보라스는 아레나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2019년 FA가 되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브라이스 하퍼와 2022년 FA 자격을 얻는 브라이언트를 앞세워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MBC스포츠플러스 메이저리그 해설위원

한국, 亞 청소년야구 중국에 콜드게임승

대만전 오심 희생양...결국 3위 마감

한국청소년야구대표팀이 중국에 콜드 게임임을 거두고 3위를 차지했다. 이성열 감독(유신고)이 이끈 한국대표팀은 4일 대만 타이중의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청소년야구 선수권대회 3·4위전에서 중국을 14-0으로 대파했다. 7회까지 10점차 이상으로 앞서면 콜드게임으로 선언되는 대회 규정상, 한국은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1회부터 7점을 뽑아내며 주도권을 쥐던 한국은 10-0으로 앞선 6회 4점을 추가하면서 승부를 갈랐다. 대회 2연패를 노린 한국은 예선에서 3전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지만, 2일과

3일 열린 슈퍼라운드에서 각각 대만(6-12)과 일본(1-3)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대만전에서 오심으로 패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 당시 승부치기로 접어들었던 10회초 2사 만루에서 대만 4번타자 천후를 2루수 땅볼로 유도하며 이닝을 마무리하는 듯했다. 그런데 2루수 박성환의 약간 높은 송구를 앞으로 나오면서 잡은 1루수 이정후가 타자를 명백한 아웃타이밍에 태웠지만, 태극인 1루수이 세이프를 선언하면서 한국은 견줄 수 없이 무너졌다. 결국 10회초에만 한가번에 7실점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4일 일본전에서 패하면서 이날 3·4위전을 치렀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